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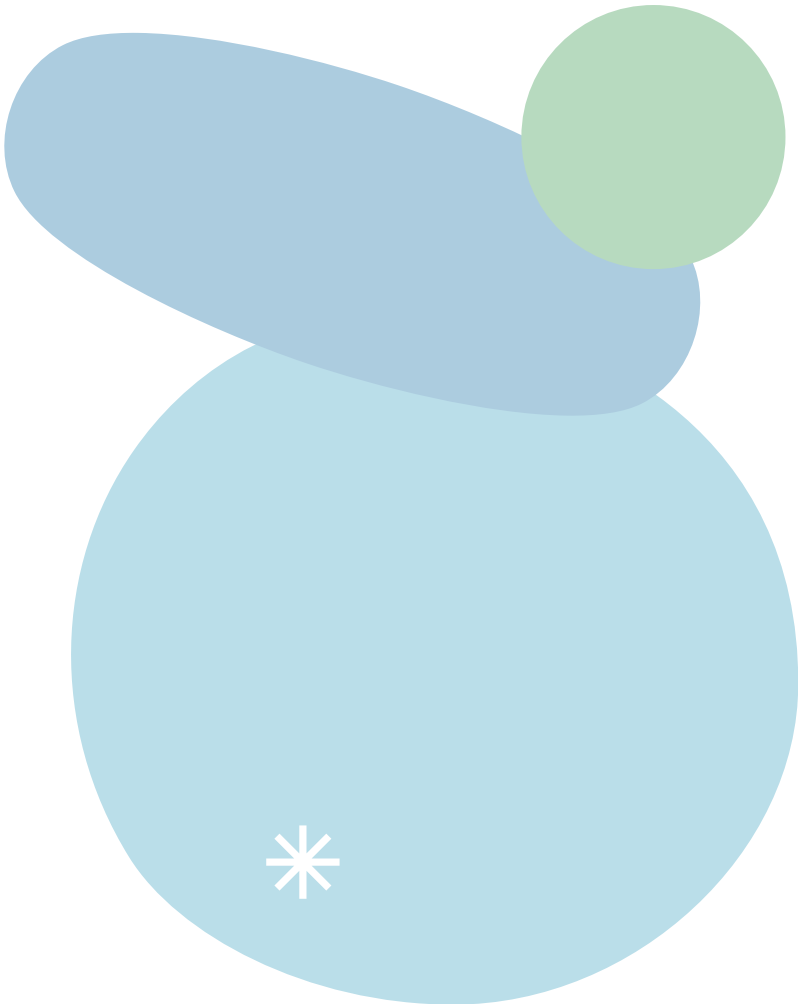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특별호(4호)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추진본부



머리말

작은 연결점들이 한반도를 잇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한 번의 만남, 한 줄의 노래가
남과 북, 이산가족과 시민, 과거와 미래를 잇고 있습니다.

이번 동행 소식지 특별호(4호)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에서 이어진 ‘한반도를 잇는 실천’을 기록했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기억하고, 자유왕래의 꿈을 품으며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시민들의 마음이 평화의 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산가족의 이야기 앞에서, 참전용사의 시 앞에서,
청년들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어떻게 미래로 이을 것인가.

그 물음에 답하듯, 우리는 걸었습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을 마음으로 잇는 시민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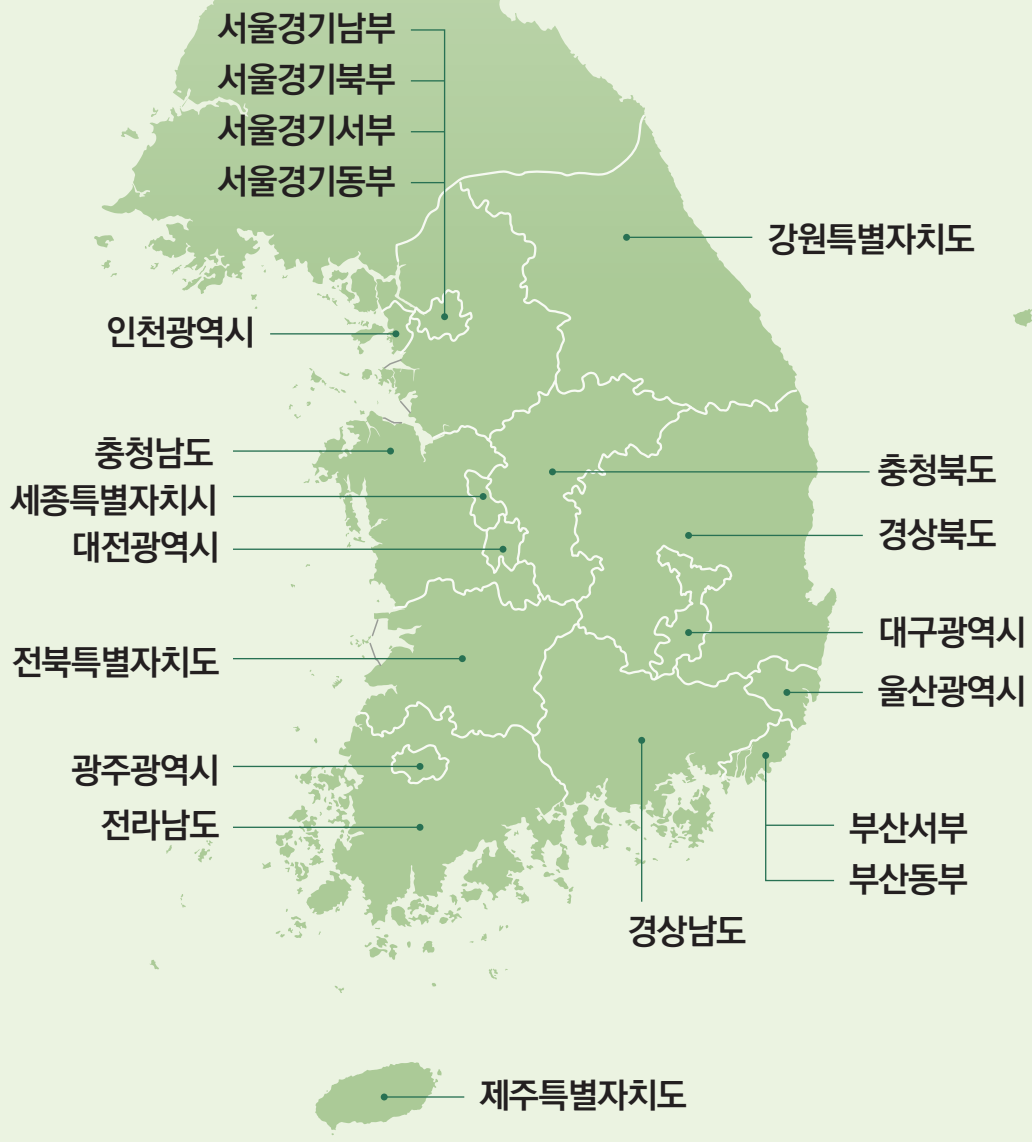
‘동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길 위에 함께해 주세요.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추진본부 드림

목차

머리말	1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추진위원회 현황	3
부산서부	6
평화와 번영의 미래: 한반도 자유왕래	
서울경기남부	8
Connect Korea! 전통 문화로 한반도를 잇다	
부산동부	10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고독사 예방 캠페인	
대구경북	12
‘숲으로 남북을 잇다’ 토크콘서트	
서울경기북부	14
효와 평화의 울림, 민족을 잇다	
서울경기서부	16
‘그날을 담아, 내일을 부르다’ 평화 음악회	
인천	18
6·25전쟁 75주년 행사 ‘평화의 도약, 한반도의 미래를 잇다’	
강원	20
평화를 켜다! Peace On!	
대전	22
한반도 자유왕래 염원 음악회 ‘남북, 길을 잇다’	
전북	24
제1회 하나의 빛, 하나의 한반도	
서울경기동부	26
미래를 잇는 청년, 한반도 자유왕래를 향해	
광주전남	28
Connect Korea! 민족을 잇다	

추진위원회
총 20개 권역







부산서부

평화와 번영의 미래: 한반도 자유왕래



▲ 개회사



▲ 청년 대표 발제

동행캠페인 부산서부 추진위원회는 2025년 6월 6일, 부산 사상구청 한마당홀에서 <동행: 민족을 잇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평화실천위원회와 (사)3.1동지회가 공동 주최하고, 70여 개 단체와 300여 명이 함께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도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한반도 자유왕래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 행사 기념사진



▲ 특별공연

주요 발제자로 나선 윤광운 (사)3.1동지회 회장은 이산가족 2세로서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왕래는 평화통일의 출발점이며, 공감을 넘어선 시민사회의 실천이 통일의 물꼬를 트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대표로 나선 양철진 동행캠페인 부산서부 청년위원은 “통일은 청년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평화를 실천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라며 청년의 역할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이산가족을 주제로 한 뮤지컬, 어린이 합창, 평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참석한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행사장을 채운 감동과 공감은 자유왕래와 평화통일을 향한 시민들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



서울경기남부

Connect Korea! 전통 문화로 한반도를 잇다



▲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축사



▲ 조억동 광주시 前 광주시장 축사

동행캠페인 서울경기남부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민족을 잇다 (Connect Korea)〉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자유왕래’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억동 전 광주시장, 김용호 서울시의회 시의원,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직 무예도보통지 남한산성 전통무예회 회장,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 퍼레이드 진행



▲ 김명순 2세대 이산가족 발제



▲ 유병추 6·25 참전용사 발제

행사의 의미를 알리는 기념식이 열렸고, 이후에는 조선 전통 무예 시연과 함께 취타대, 농악대가 참여한 전통문화 퍼레이드가 펼쳐져, 덕수궁을 찾은 청소년들과 외국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체험 부스도 마련되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 이산가족 포럼 행사 기념사진

부산동부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고독사 예방 캠페인



▲ 특별공연



▲ 특별공연

2025년 6월 7일, 부산 사하구청 본관 대강당에서 고독사 예방 캠페인 행사가 개최되었다. 동행 캠페인 부산동부 추진위원회와 (사)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사)새삶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 빛 퍼포먼스



▲ 행사 기념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사)새살인협회 관계자의 발제, 이산가족 2세의 인터뷰, 남북 자유왕래 관련 발표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관계 단절의 현실이 조명되었고, 사회 통합의 필요성 또한 강하게 제기되었다.

부산동부 추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은 고독사 예방은 물론,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다.



대구경북

‘숲으로 남북을 잇다’ 토크콘서트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환영사



▲ 전홍순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 회장의 환영사

(사)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와 동행 대구경북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숲으로 남북을 잇다> 평화기념 토크콘서트가 6월 7일, 대구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다.

허태조 (사)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장은 나무심기를 통한 공동체 회복과 남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북한이탈주민인 김서영 씨는 통일을 “삶의 문제”로 언급하며 자유왕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안형준 전 월남전참전자회 대구시지부 지부장은 “통일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며 청년 세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 숲으로 남북을 잇다 행사 기념사진



▲ 6·25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감사 꽃다발 증정

행사 현장에는 무궁화 지도 꾸미기, 이산가족 퍼포먼스, 합창 공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관심과 공감을 끌어냈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주도의 평화통일 실천 활동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 빛 퍼포먼스

서울경기북부

효와 평화의 울림, 민족을 잇다



▲ 남북 자유왕래 열차 포토존



▲ 6·25참전 유공자에게 코사지를 달아드리는 모습

지난 6월 7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효와 평화의 울림, 민족을 잇다’를 주제로 평화·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 본 행사는 (사)한국효도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역회와 동행캠페인 서울경기북부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동행캠페인 서울경기북부 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효(孝)’와 ‘평화’를 매개로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약 5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평화열차’를 콘셉트로 삼아, 통일로 향하는 여정을 단계별 순서로 풀어낸 식순이 눈길을 끌었다.



▲ 평화 통일 염원 빛 퍼포먼스



▲ 새마을운동 평안북도지회 김인철 지회장의 이산가족 발제



▲ 특별공연

김인철 새마을운동 평안북도지회장은 발제를 통해 실향민으로서의 아픔을 전하며, 이산가족의 비극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지금도 이어지는 고통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뮤지컬 공연은 평화 통일의 과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했고, 공연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휴대폰 불빛으로 퍼포먼스에 동참하여 공감과 연대의 마음을 끌어냈다.

또한, 세대 간 소통과 남북 자유왕래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통일다방> 좌담회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동행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행사 기념사진

서울경기서부

‘그날을 담아, 내일을 부르다’ 평화 음악회



▲ 유엔금강산예술단 공연하는 모습



▲ 류재복 남북이산 가족협회장이 발제하는 모습

6월 7일, 서초구에 위치한 흰물결아트센터에서 ‘그날을 담아, 내일을 부르다’를 주제로 한 평화 음악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사)남북이산가족협회, 6·25참전유공자회 영등포지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전쟁의 비극을 돌아보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함께 기억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약 500명이 참석했다. (사)남북이산가족협회 류재복 회장은 “전쟁의 아픔을 넘어 하나 됨을 노래하는 이 자리가 이산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합창단과 관람객 ‘빛’ 퍼포먼스



▲ 2부 음악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어 그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용사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부 공연에서는 총 8개 팀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고, 이 가운데 안승춘 월남전 참전용사가 낭독한 축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는 깊은 울림을 전하며 청중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인천

6·25전쟁 75주년 행사 ‘평화의 도약, 한반도의 미래를 잇다’



▲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제자



▲ 발제자의 강연을 경청하는 모습

6월 7일,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6·25전쟁 75주년을 기념하는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행사인 <평화의 도약, 한반도의 미래를 잇다>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새한장학회문화교육포럼이 주최하고 인천 평화실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약 600명의 시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농악대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주요 축사와 발제가 이어졌다. 김봉호 인천지구 이북도민회 연합회장은 6·25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의 경험을 전하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체력이 모일 때, 그 힘이 한반도의



▲ 창작 무용 공연을 하는 공연팀



▲ 발제자의 강연에 집중하는 모습



▲ 세계불교교황청 산카시아 사원 석대웅 회주의 발제모습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청중의 참여 의식을 고취했다.

발제 사이에는 전통무용, 빛 퍼포먼스, 합창 공연 등이 어우러져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행사는 전쟁 세대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평화통일을 향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일깨우는 뜻깊은 자리였다. 주최 측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동행 캠페인을 중심으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실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합창공연과 함께 빛 퍼포먼스에 동참하는 청중

강원

평화를 켜다! Peace On!



▲ 남북 자유왕래를 소망하는 포토존



▲ 평화의 염원을 담아 밝힌 빛을 평화 빛 충전소에 담은 시민들

동행캠페인 강원 추진위원회는 6월 12일, 원주시에서 '동행: 평화로 우리 ON'을 부제로 한 <민족을 잇다> 행사를 개최했다. 약 400명의 시민이 참석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통일 염원을 담은 LED 공을 밝히며 한반도 자유왕래와 평화통일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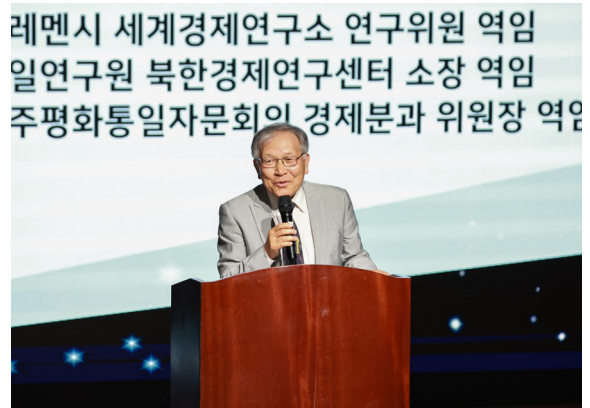
행사는 주요 참석자들의 발제 외에도 특별공연, 빛 퍼포먼스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 평화의 불을 켜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는 객석



▲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으로 마음을 울림



▲ 김영운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발제

김예림 청년위원은 “지금은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라며, 청년 세대가 한반도 평화에 있어 주체적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김영운 대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마음을 모으게 할 주체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사회의 연대와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행사는 통일에 대한 강원 지역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냈으며, 청년 주도의 평화 실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 행사 기념사진

대전

한반도 자유왕래 염원 음악회 '남북, 길을 잇다'



▲ 석만청 한반도평화국민운동 중앙회 총재 인사말



▲ 동행캠페인 부스의 평화를 담은 타투

6월 15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제3회 <동행: 한반도 자유왕래 염원 음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중앙회, 한반도평화국민운동 중앙회, (사)부패방지운동본부총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동행캠페인 대전·충남·세종 추진위원회와 평화실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약 2,300명의 시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병권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중앙회 총재는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음악회를 통해 통일에 대한 진심 어린 염원이 서로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울 뮤지컬단의 뮤지컬 '수학여행 IN 평양'



▲ 전통놀이 체험



▲ 시민들의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담은 체험 부스

석만청 한반도평화국민운동 중앙회 총재는 “오늘 이 자리는 남북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다리와 같다.”라고 강조했으며, 설기수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대전시총연합회 회장은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연은 북한이탈주민인 현소희 씨의 발제와 청년 대표의 평화 메시지로 시작해, 뮤지컬, 전자 바이올린 연주, 관현악 메들리, 전병권 총재의 특별 노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



▲ 평화통일 염원 음악회 전경

전북

제1회 하나의 빛, 하나의 한반도



▲ 김민정 사단법인 열린사회 국제문화원 이사 발제



▲ 씨름 보통랑세이 캄보디아주한대사 축전

분단의 상처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조명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 <제1회 하나의 빛, 하나의 한반도>가 6월 1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6·25 정전 75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사)열린사회국제문화원이 주최하고, (사)민족통일전북협의회, 동행캠페인 전북 추진위원회, 전북공연예술진흥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진 (사)열린사회국제문화원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정희 전 국회의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최종일 동행 상임고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여러 인사들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해오기도 했다.



▲ 행사 기념사진



▲ 어린이 합창단



▲ '평화의 빛' 퍼포먼스

이어진 무대에서는 이산가족의 인터뷰를 비롯해 판소리와 양상블 연주, 어린이 합창, '평화의 빛'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이어지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행사는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이 분단의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바람을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였다.



서울경기동부

미래를 잇는 청년, 한반도 자유왕래를 향해



▲ 이산가족 발제



▲ 이산가족 발제

2025년 6월 14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포천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2025 호국보훈의 달 기념 〈동행: 한반도, 평화를 잇다〉 행사가 성대히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열심히일하는사람들 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사)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과 국제청년평화그룹(IPYG) 글로벌 11지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총 814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미래를 잇는 청년, 한반도 자유왕래를 향해’라는 부제를 내건 이번 행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유와 평화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다.



▲ 한반도 빛 퍼포먼스



▲ 청담빛 합창단의 '못잊어' 공연



▲ 참전용사의 평화메세지 남기는 모습

특히 참전용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서는 청중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 이어진 청담빛 합창단의 '못잊어' 공연과 한반도 지도 형상의 빛 퍼포먼스는, 한반도 자유왕래와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내며 현장에 참석한 인사와 시민 모두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 어린이와 청년들이 참전 용사에게 감사 꽃다발 전달

광주전남

Connect Korea! 민족을 잇다



▲ 강구영 HWPL 글로벌 02지부 지부장의 환영사



▲ 정철원 담양 군수의 축사

6월 28일, 동행캠페인 광주전남추진위원회는 HWPL 글로벌 02지부와 함께 전라남도 담양문화회관에서 ‘커넥트 코리아, 민족을 잇다’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500명의 시민이 참석해 한반도 자유왕래와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함께 나눴다.

1부는 정철원 담양군수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오건웅 전 이북5도민회장이 이산가족으로서의 삶과 평화통일에 대한 바람을 담아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임운섭 광주전남추진위원회 청년위원이 ‘평화통일의 단계적 접근: 한반도 자유왕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 행사 기념사진



▲ 오건웅 이북5도민 전 회장의 발제



▲ 임운섭 동행캠페인 광주전남추진위원회 청년위원의 발제

2부에는 평화통일 메시지를 담은 공연이 이어졌고, 광주전남지역 인사들의 응원 메시지 영상과 더불어 ‘자유왕래’를 주제로 한 즉석 4행시 인터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이산가족 문제와 분단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민족이 이어지는 자유왕래의 그날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뜻을 함께했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합창단



대한민국을 잇다